

보건계열 대학생의 코로나19 지식,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이 예방행태에 미치는 영향

강현주[‡]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COVID-19 Knowledge, Subjective Norms, Resilience on Preventive Behavior in Health College Students

Hyun-Joo Kang[‡]

Dep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VID-19 in Health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ere convenience sampling of 165 students in Health College Students departments at Jeolla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area.

Results: Factors affecting COVID-19 Preventive behavior were subjective norms and resilience. The higher subjective norms and resilience, the higher COVID-19 preventive behavior.

Conclus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health education to raise the knowledge level of COVID-19 and to provide health training programs to strengthen subjective norms and resilience.

Keywords COVID-19 knowledge, Health college students, Preventive behavior, Resilience, Subjective norms

Received on Jul 25, 2022. Revised on Aug 03, 2022. Accepted on Aug 10,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Kang@kwu.ac.kr)

이 연구결과는 2022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22-054)

I. 서론

전 세계를 대유행 재난 상태로 변화시킨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호흡기 증후군으로 SARS-CoV-2에 의한 질환이다. 기존 경험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의 영향과는 확연하게 다른 재난으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2022년 현재에도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엔데믹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물건과 접촉했을 경우나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1] 잠복기는 대략 2주 이하로 평균 4~7일로 알려졌다. 환자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격리 시 이차적인 감염의 발생이 적었고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 시는 감염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을 시 전파력이 높아 SARS-CoV-2도 증상 발현 시에 전염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의 발현이 3~7일 경에 나타나고 고열, 피로감, 기침 등이 주요한 증상이며,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이 나타났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부터 폐렴 및 사망까지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질병관리청

에서는 손 씻기 위생과 기침 발생 시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준수 등의 비말 주의와 접촉 주의 준수를 적극 권고하였다. 바이러스는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이어졌고 고위험군과 고령층을 우선으로 3차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022년 4월 25일 이후는 감염병 2급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2]. 이러한 상황 속에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감염병에 대응하는 지침이 변경되어 수업 운영방식도 이에 준하는 상황에 맞게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학습 환경을 운영, 유지하였다. 다른 계열 학생들과 달리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임상실습 등 교내 운영 교과목 외에도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외부 의료기관 임상실습이 대부분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특수한 학습 환경이 요구되는 계열 특성이 있다.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지식을 학습하고 대응하는 방법 및 감염병 예방 원칙을 습득하는 것은 예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학생 본인과 의료기관, 더 넓은 범위인 지역사회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신종 감염병은 일상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교육환경에

서도 학교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확연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인행동과 태도, 인식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학교 감염병 예방 지침, 미디어, 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와 홍보를 긍정적인 수용으로 인식하는 회복탄력성[3]과 개인의 행동 이전에 의사결정인 주관적 규범[4]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3].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예방행위를 함에 있어 주변 지인들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대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 행위 의도가 주관적 규범과 관련이 있기에[5]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과 코로나19 예방행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직면했을 경우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에 적절하고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 핵심[3]으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요구를 의미한다[6]. 그러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정서나 인지, 행동, 생리 및 환경적인 부분의 조절에 있어 중요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편으로[7] 주관적 규범과 회복탄력성이 높을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개인의 예방적인 행동과 태도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과 예방행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행태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예비 의료기관 종사자인 보건계열 대학생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2022년 05월 02일부터 2022년 05월 20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유의수준 .05와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를 위한 최소 표본 크기는 160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번호 : 1041465-202203-HR-001-04) 승인 후 연구 목적 이해와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탈락률을 고려한 총 180부가 배부되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165명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일반적인 특성, 코로나19 지식,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 예방행태를 조사하였다. 지식에 대한 도구로는 메르스에 관한 지식을 연구한 이[8]의 도구를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도구로 수정한 박[9]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였고, 13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설명한다. 주관적 규범은 코로나19에 대한 김[10]의 주관적 규범을 수정, 보완한 김[1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음을 의미하고, 김[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0$ 이었고, 김[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1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75$ 이었다. 회복탄력성은 Reivich와 Shatte[12]가 개발한 도구를 신 등[13]이 수정하여 재 제작한 도구를 배[14]가 재수정한 27문항을 사용하였다. 신 등[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4~.846이었고, 배[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7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1이었다. 예방행태는 이[15]가 개발한 호흡기 감염 예방 행위 도구를 이[16]가 코로나19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써, 김[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15]의 Cronbach's $\alpha=.75$ 이었으며, 이[16]의 Cronbach's $\alpha=.89$ 이었고, 김[11]의 Cronbach's $\alpha=.72$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05$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코로나19 지식,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 예방행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파악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행태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은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고,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세 이하(51.5%)’가 가장 많았고, 21~22세(35.8%), 25세 이상(6.7%), 23~24세(6.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타(68.5%)’가 가장 많았고, ‘기독교(20.6%)’, ‘불교(6.7%)’, ‘천주교(4.2%)’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은 ‘중간(61.8%)’, ‘내향적(26.1%)’, ‘외향적(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경험 여부는 ‘예(76.4%)’, ‘아니오(23.6%)’였고, 거주형태는 ‘부모님 댁(41.8%)’, ‘자취(33.9%)’, ‘기숙사(24.2%)’였다. 학교 성적은 ‘중위권(59.4%)’, ‘상위권(20.6%)’, ‘하위권(20.0%)’이었고, 전공 만족은 ‘만족(64.8%)’, ‘보통(32.1%)’, ‘불만족(3.0%)’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COVID19 지식,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 예방행태

연구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지식,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 감염관리 예방행태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식은 13점 만점에 9.62±1.38점이었으며, 주관적 규범은 5점 만점에 3.99±0.72점이었고,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73±0.55점이었으며, 예방행태는 5점 만점에 4.04±0.66점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COVID19 지식,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 예방행태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은 주관적 규범($r=.211, p<.01$), 예방행태($r=.207, p<.0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규범은 회복탄력성($r=.353, p<.01$), 예방행태($r=.669, p<.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탄력성은 예방행태($r=.511, p<.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6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0	51.5 (85)
	21~22	35.8 (59)
	23~24	6.1 (10)
	≥25	6.7 (11)
Religion	Christian	34 (20.6)
	Buddhism	11 (6.7)
	Catholic	7 (4.2)
	Etc	113 (68.5)
Character	Introvert	43 (26.1)
	Middle	102 (61.8)
	Extrovert	20 (12.1)
Self-isolation experience	Yes	126 (76.4)
	No	39 (23.6)
Residential form	Parents house	69 (41.8)
	Living alone	56 (33.9)
	Dormitory	40 (24.2)
School grades	Top-level	34 (20.6)
	Mid-level	98 (59.4)
	Sub-level	33 (20.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07 (64.8)
	Usually	53 (32.1)
	Dissatisfaction	5 (3.0)

<Table 2> Degree of knowledge, subjective norms, resilience, preventive behavior of COVID-19 N=165

Variables	Mean±SD	Min	Max
Knowledge	9.62±1.38	5.00	13.00
Subjective norms	3.99±0.72	1.80	5.00
Resilience	3.73±0.55	2.15	5.00
Preventive Behavior	4.04±0.66	2.29	5.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subjective norms, resilience, preventive behavior of COVID-19

Variables	Knowledge	Subjective norms	Resilience	Preventive Behavior
Knowledge	1			
Subjective norms	.211**	1		
Resilience	.128	.353**	1	
Preventive Behavior	.207**	.669**	.511**	1

**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Factors of affecting preventive behavior of COVID-19

Variables	B	SE	β	t	p	VIF
Knowledge	.032	.028	.067	1.166	.245	1.148
Subjective norms	.471	.057	.514	8.285	.000***	1.322
Resilience	.387	.079	.322	4.921	.000***	1.472

*** $p < .001$

Durbin-Watson=1.871, F=11.000($p < .001$), R=.759, $R^2=.576$, Adj. $R^2=.523$

4.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1.871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은 1.148 ~ 1.472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규범($\beta=.514, p < .001$), 회복탄력성($\beta=.322, p < .001$)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예방행태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2.3%이었다($F=11.000, p < .001$). 주관적 규범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과 예방행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여 예비 의료기관 종사자인 보건계열 대학생의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식은 13점 만점에 9.6점으로 조사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연구한 박[9]의 연구에서는 13점 만점에서 9.18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보다는 높게 조사되었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17]의 지식점수는 88.88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지식점수를 환산했을 경우인 73.8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의학·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 등[18]의 점수는 84.70점으로 임[17]의 연구 지식점수와 비슷하였고, 본 연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주 증상과 PCR(중합 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진단, 3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전과 예방에 대한 지식 문항은 타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정답률에서 다소 높게 조사되었고, 코로나19의 치료제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낮게

조사된 점도 타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차[2]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예방수칙을 전달 받았고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에서도 학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함으로 인해 지식수준이 보통 이상인 9.6점으로 조사된 것으로 사료된다. 계열별, 학과별, 전공교과목 특성을 고려한다면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학교 보건관리센터를 통해 예비 의료기관 종사자인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규범은 5점 만점에 3.99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11]의 연구 3.81점보다는 근소하게 높은 점수였고, 4.16점으로 조사된 김[10]의 연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학교 생활은 단체 활동이 많은 경향이 있어 학습한 교육의 전달과 파급 효과가 높은 특성이 있어[19]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학교라는 단체생활에서의 바른 규범과 성숙한 공동생활 영향이 학생들에게 작용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바른 주관적 규범 형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태가 인지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건교육의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보통 정도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방[20]의 3.39점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전공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배[14]의 3.54점과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극복하려는 힘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과 성장을 포함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의 개념[13]으로 일상적이지 못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극복과 적응을 보여주는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대상자의 예방행태는 5점 만점에 4.04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11]은 3.90점이었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16]는 4.05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코로나19는 국내 확진 추이에 따라 방역지침 변경이 있었고[2],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예방수칙과 행태는 이미 생활 속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19 지식은 주관적 규범과 예방행태와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규범은 회복탄력성, 예방행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탄력성은 예방행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위를 연구한 한 등[21]의 연구와 박 등[22]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예방행동,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방행위와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위한 예방행태와 회복탄력성을 높일 보건 교육학적 접근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침에 의거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교육이 학교 내 보건교육에서 학습화된다면 주관적 규범과 예방행태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계열의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규범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1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영향 요인으로 조사되었고, 119구급대원의 행위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 통제와 안전행동을 연구한 문 등[23]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규범의 설문 문항을 보면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로 가족과 친구를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에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주관적 규범과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형성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 등[24]의 연구에서도 회복탄력성이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여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중 코로나19 지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코로나19 지식이 보건계열 대학생의 긍정적인 예방행동과 태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임[17]의 연구와도 본 연구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자료 수집한 결과로 일반화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선정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행태 수행의 증진을 위한 감염관리 보건교육 제공과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과 예방행태와의 관련성과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보건계열 대학생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은 13점 만점에 9.62±1.38점이었다. 주관적 규범은 5점 만점에 3.99±0.72점이었고,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73±0.55점이었으며, 예방행태는 5점 만점에 4.04±0.66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지식은 주관적 규범($r=.211, p<.01$), 예방행태($r=.20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규범은 회복탄력성($r=.353, p<.01$), 예방행태($r=.669,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탄력성은 예방행태($r=.511,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규범($\beta=.514, p<.001$), 회복탄력성($\beta=.322, p<.001$)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규범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예방행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건계열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 회복탄력성이 코로나19 예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예비 의료기관 종사자인 보건계열 대학생의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행태의 수행도를 높이고 지식,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REFERENCES

1. <http://www.kdca.go.kr/>
2.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

- 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3. Yoo AJ, Lee JS, Kim JM: The Impacts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3(5): 123-132, 2005.
 4.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179-211, 1991.
 5. Lee JW: Covid-19 preventive action intention determinants-Focused on the expanded health belief model-. *Annals of the Romanian Society for Cell Biology* 25(1):1425-1432, 2021.
 6. Lee HY, Cho HJ: The Effect of Resilience on Perceived Stress -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Emotion and Cognitive Flexibil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1):147-168, 2016.
DOI: 10.23844/kjep.2016.02.28.1.147
 7. Yeon EK: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post anesthetic care unit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1.
 8. Lee KH: Knowledge, health belief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7.
 9. Park SH, Byun EK, Seo YS: Knowledg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Coronavirus disease 19(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2):281-289, 2021.
DOI: 10.17703/JCCT.2021.7.2.281
 10. Kim YB, Yoon TH, Sonh AR: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8(1):25-36, 2021.
 11. Kim HS: Influencing Factors on COVID-19 Preventive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2022.
 12. Karen R., Andrew S.: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pp9-321, 2003.
 13. Shin WY, Kim MG, Kim JH: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20(4):105-131, 2009.
 14. Bae HR: An Effect of College Student'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eonggi-do, 2012.
 15. Lee JE: Factors to practicing behavior for preventing respiratory infection in patients receiving hemodialysi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cheongnam-do, 2018.
 16. Lee WK: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COVID-19 campaign on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 Mediated by health belief model(HBM).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2021.
 17. Lim HJ, Lee JY, Hwang SH: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VID-19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2): 83-89, 2021.
DOI: 10.33615/jkohns.2021.9.2.83
 18. Kim HR, Choi EY, Park SY, Kim EY: Factors Influenc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mong Medically Inclined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7(4):428-437,2020.
DOI: 10..7739/jkafn.2020.27.4.428
 19. Cowling BJ, Chan KH, Fang VJ, et al.: Facemasks and hand hygiene to prevent influenza transmission in households: a cluster randomized trial.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7):437-446, 2009.
DOI: 10.7326/0003-4819-151-7-200910060-00142
 20. Bang MY: The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ngence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atolic Kwandong University, Gangwon-do, 2019.
 21. Han SJ, Lee JH: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s of COVID-19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7):283-294, 2021.
DOI: 10.15207/JKCS.2021.12.7.283
 22. Park JH, Kim JH, Lee HJ, Kang PR: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1): 48-59, 2021.
 23. Moon TY, Choi MY: Model for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Behavior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 Safety Intention and Safety Behavior i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215-224, 2018.
DOI: 10.5762/KAIS.2018.19.9.215
 24. Lee HJ, Shin SJ: Effects of Health Teachers' Knowledge of COVID-19 and Resilience on the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Work.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5(2):297-309, 2021.
DOI: 10.5932/JKPHN.2021.35.2.297